

PEOPLE

2025년 5월 15일 목요일



광주시, 식품안전관리 '우수' '식품안전의날' 기념식 46명 표창

광주시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4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고광안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식품안전에 기여한 식품관련 단체, 식품위생업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급식관리지원센터, 관계 공무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식품안전 유공자 46명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 또 '2025 광주방문의 해, 함께하는 식품안전'이라는 슬로건으로 단체 퍼포먼스를 벌이며 안전한 먹거리 문화 확산을 결의했다.

광주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5년 식품안전 관리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한전-전기안전공사

ESS 안전 관리 기술협력

한국전력은 14일 전력연구원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ESS 산업 활성화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전 전력연구원 심은모 원장과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 송길목 원장이 참석했다.

협약은 한전이 자체 개발한 '지능형 배터리 열화 관리 시스템(BIMS)'을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관리하는 민간 ESS 설비 10개소(100MW)에 적용해 실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ESS 안전관리 기술의 현장 적용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한전은 이번 BIMS 시범적용의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환경에 대한 최적화를 구현하고 고객 니즈파악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한전 소유의 해외 ESS 설비에 적용해 관련 기술의 해외 진출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 상무지구대-자율방범대

야간 합동순찰...안전사회 조성

광주 서부경찰 상무지구대와 자율방범대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14일 서부경찰에 따르면 최근 치평동 자율방범대와 함께 치평동 유홍가 일대를 대상으로 야간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순찰이 진행된 상무지구는 유흥주점이 밀집해 있어 주취로 인한 폭력 사고가 많은 지역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이에 상무지구대와 치평동 자율방범대는 매주 순찰을 통해 범죄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인동섭 서부경찰 상무지구대장은 "매주 순찰을 진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활동에 감사하다"며 "시민이 안전한 상무지구를 만들기 위해 매일 주기적으로 자율방범대와 합동순찰을 비롯한 범죄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유은학원총동문회, 5·18 희생 동문 민주열사 참배

광주상고 출신 이정연·이성귀·문재학·안종필 등 4명 추모

1987년 6월 항쟁 때 숨진 동성중 출신 이한열 열사 묘소도

학교법인유은학원(광주상고·광주여상고·광주동성고·광주동성중·광주동성여중) 총동문회는 5·18민주화운동 제45주년을 맞아 지난 13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이날 참배에는 유은학원총동문회 박규환 회장, 김영석 상임수석부회장, 김철남 수석부회장(광주여상고 총동문회장), 오경미 상임부회장, 박민규 사무총장 등 전 집행부와 최영태 전 회장, 나명엽 전 사무총장, 이명자 전 광주여상고 총동문회장(전 오월이머니집 편집) 등 역대 5·18부상자동지회장인 이지현 동문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또 광주동성고 선영구 교장과 학생회 김지후 회장, 기장혁·조초 부회장 등도 함께 했다. 이들은 1묘역에 묻힌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의 진압작전 때 숨진 박효선 작가의 연극 '금희의 오월' 주인공인 광주상고(현 광주동성고) 28회 이정연(당시 전남대 사범대학 상급교육과 2학년) 열사, 21일 계엄군의 집단 발포 때 전남도청 앞에서 숨진 31회 이성귀(당시 2학년) 열사, 27일 전남도청에서 최후 항쟁을 하다 산화한 32회 문재학·안종필(당시 1학년) 열사의 묘소를 각각 참배하고 헌화했다.

이명자 전 광주여상 총동문회장의 부군인 정동년 전 5·18기념재단 이사장 묘소와 3묘역에 안장된 광주동성중 32회로 1987년 '6월 항쟁' 당시 연세대 정문 앞에서 경찰이 손 최루탄에 맞아 숨진 이한열(당시 연세대 2학년) 열사 묘소를 잇달아 참배했다.

박규환 회장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결사 항쟁했던 후배들의 용감한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재학생들이 자랑스러운 선배들의 삶을 통해 오월 정신에 같이 공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동성고 학생회 회장단은 "오늘 5·18민주묘지 참배를 통해 1980년 5월 계엄군에 의해 희생하신 선배님들에 대해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알게 돼



학교법인 유은학원 총동문회는 지난 13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깊은 감동을 받았다"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권리와 자유가 선배님들의 고귀한 희생 위에 마련됐다는 것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상고는 5·18 당시 희생된 광주 지역 17개 초·중·고교 학생 19명 가운데 가장 많은 3명(졸업생 포함하면 4명)이 희생됐다.

또 5월 27일 마지막까지 전남도청을 수습하다 산화한 15명의 시민군 가운데 가장 많은 3명이 광주상고 출신이다.

이성귀 열사는 두개골 관통 총상, 고등학생 시

민군으로 활동하며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실제 주인공인 문재학 열사는 좌북부와 좌전경부 관동 총상, 안종필 열사는 우후부 관동 총상으로 각각 숨졌다. 이중 안 열사는 유품으로 며칠 전 맞춘 교복 영수증과 돈 500원을 남겼다.

광주동성고는 이처럼 처절했던 상황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용기를 내 군부에 맞선 선배들을 위해 교정에 조성된 추모석과 기념비 앞에서 매년 자체적인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열고 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광주도시공사, 찾아가는 복합지원 시범사업 첫 운영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는 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맞춤형 종합상담 서비스인 '찾아가는 복합지원' 사업을 시범운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금융위원회 시범사업으로, 주거·금융·법률·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입주 주민에게 생활 밀착형 맞춤 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했다. 생업 등으로 기관 방문이 어려운 입주자를 위해, 상담 인력이 현장까지 찾아가 서비스를 진행했다.

상담은 광주역 다사모에서 진행했으며, 공사 입주자를 포함해 10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기존의 One-stop 이동복지 상담소를 기반으로 확대 추진됐으며, 광주시를 비롯한 총



12개 기관이 협업하여 주거, 금융, 법률, 고용,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친 통합 상담을 제공했다.

김승남 사장은 "광주에서 시행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입주자 한분 한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포스코 광양제철소 홍보관 'Park1538'을 찾는 방문객들이 시설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광양제철소 'Park1538' 문화 명소로 각광

지난달 개관 1700명 방문...포스코미술관 작품 33점 전시도

포스코 광양제철소 홍보관인 'Park1538'이 지역의 새로운 문화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14일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Park1538'은 지난 달 3일 개관 이후 이날까지 방문객이 1700명을 넘어섰다.

홍보관은 광양제철소의 역사와 기술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영상과 역사·제품 전시 등 총 9개의 체험형 전시 및 영상 콘텐츠로 구성, 철강산업의 중요성과 발전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또 이머시브(몰입형) 영상관, 비전 영상관 등 실감형 미디어아트와 제철소 공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모형 중심의 견학시설, 에너지와 조선 등 각 산업과 실생활 가전에 적용된 모습을 전시하는 제품 전시존까지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이와 함께 홍보관 내에 설치된 '포스코미술관'은 오는 8월 말까지 윤형근 작가의 'UL TRA MARINE', 박서보 작가의 '묘법(描法) No.930909' 등 포스코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 33점을 개관전으로 전시하고 있다.

광양제철소는 지역예술가들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전시회와 풍부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문화 발전에 기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홍보관의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문화와 문화와 산업의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시를 통해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고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jin@gwangnam.co.kr



한전KDN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에너지ICT분야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전KDN-켄텍, 연구개발 성과 확산 업무협약

기술 상용화·확산 등 에너지ICT 생태계 기반 마련

한전KDN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는 지난 13일 켄텍 대회의실에서 '에너지ICT분야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차세대 그리드 △신재생에너지 응용기술 △AI를 활용한 전력관리 기술 △SMR 및 수소 분야 협력 등 실질적 협력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산학협력을 통한 양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에너지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급변하는 에너지 산업 환경 속에서 축적돼 온 현장 기술 전문성과 미래 인재육성 융합으로 △공통 R&D 주제 발굴 및

국가과제 공동 추진 △기술 도입·이전 △실증 인 프라 상호 활용 △자·산·학·연 사업추진 △기술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형 한전KDN 사장은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에서 AI기반 에너지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한전KDN에 있어 켄텍의 에너지특화 연구역량 기반의 공동연구 및 보유 기술 교류 활성화는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한 강력한 시너지로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등 국가 에너지 정책 혁신을 위한 실행력 확보로 국민에게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송홍 기자 photo25@

광주신세계, 현충시설 환경정화 '눈길'

㈜광주신세계가 광주지방보훈청과 함께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가수호 관련 현충시설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환경정화 활동에 나서 눈길을 끈다.

광주신세계는 14일 임직원 봉사단과 광주보훈청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서구 농성광장에 위치한 현충시설인 '죽봉 김태원 의병장 동상' 인근 정화활동을 전개했다. 죽봉 김태원 의병장 동상은 지난 1998년 건립됐으며 현충시설 '관리번호 50-1-09'로 농성광장 내 위치에 있다.

이번 정화활동은 광주보훈청 주최로 진행됐으며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관련 현충시설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임직원 봉사단은 농성광장 내 김태원 의병장 동상을 물수건으로 직접 닦고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청소하는 등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송대영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산구 '오월 정신 잇는 한 표, 투표가 민주주의'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과 공직자들이 14일 5·18 민주화운동 제45주년을 맞아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6·3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 캠페인을 진행했다.